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제91차 CATI조사

제106차 ARS조사

108차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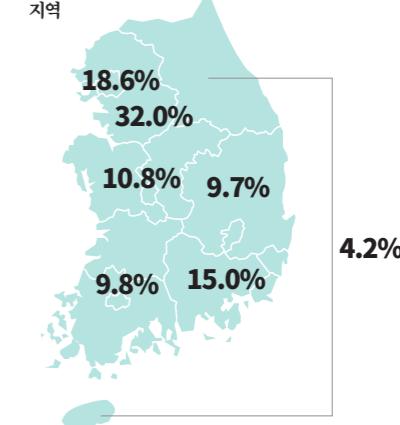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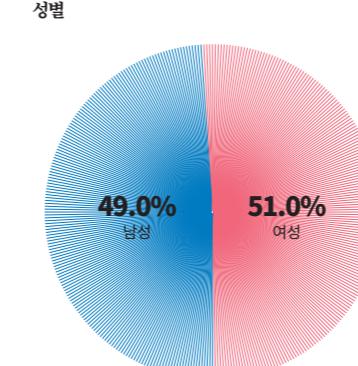
이념성향별 응답자 비율	CATI			
	28.3	44.5	21.9	5.3
ARS	28.6	41.6	21.6	8.3
	● 진보	● 중도	● 보수	● 잘모름

CATI 조사개요

모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04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29,999개 / SKT: 15,000, KT: 9,000, LGU+: 5,999)제공 무선기기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4년 10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응답률	12.4% [총 통화시도 8,083명]
조사기간	2024년 11월 15일 ~ 11월 16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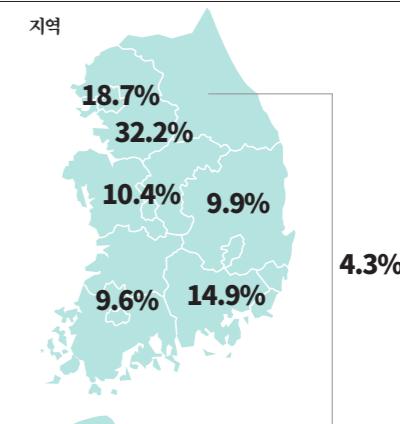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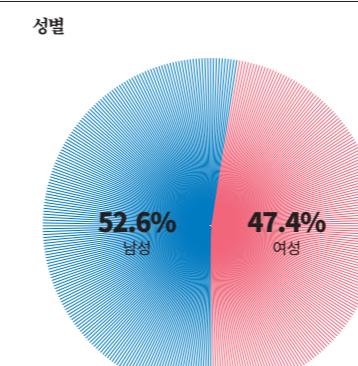
전체	조사한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 배율 (B/A)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성별	남성	492	49.0	496	49.4
	여성	512	51.0	508	50.6
연령	18~29세	159	15.8	157	15.6
	30대	153	15.2	149	14.8
	40대	175	17.4	177	17.6
	50대	197	19.6	197	19.6
	60대	172	17.1	176	17.5
	70세이상	148	14.7	148	14.7
지역	서울	187	18.6	187	18.6
	인천·경기	321	32.0	322	32.1
	대전·세종·충청	108	10.8	108	10.8
	광주·전라	98	9.8	98	9.8
	대구·경북	97	9.7	98	9.8
	부산·울산·경남	151	15.0	149	14.8
	강원·제주	42	4.2	42	4.2

**ARS 조사개요**

모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05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조사방법	무선(100%) RDD 활용 ARS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4년 10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림가중)
응답률	2.3% [총 통화시도 44,241명]
조사기간	2024년 11월 15일 ~ 11월 16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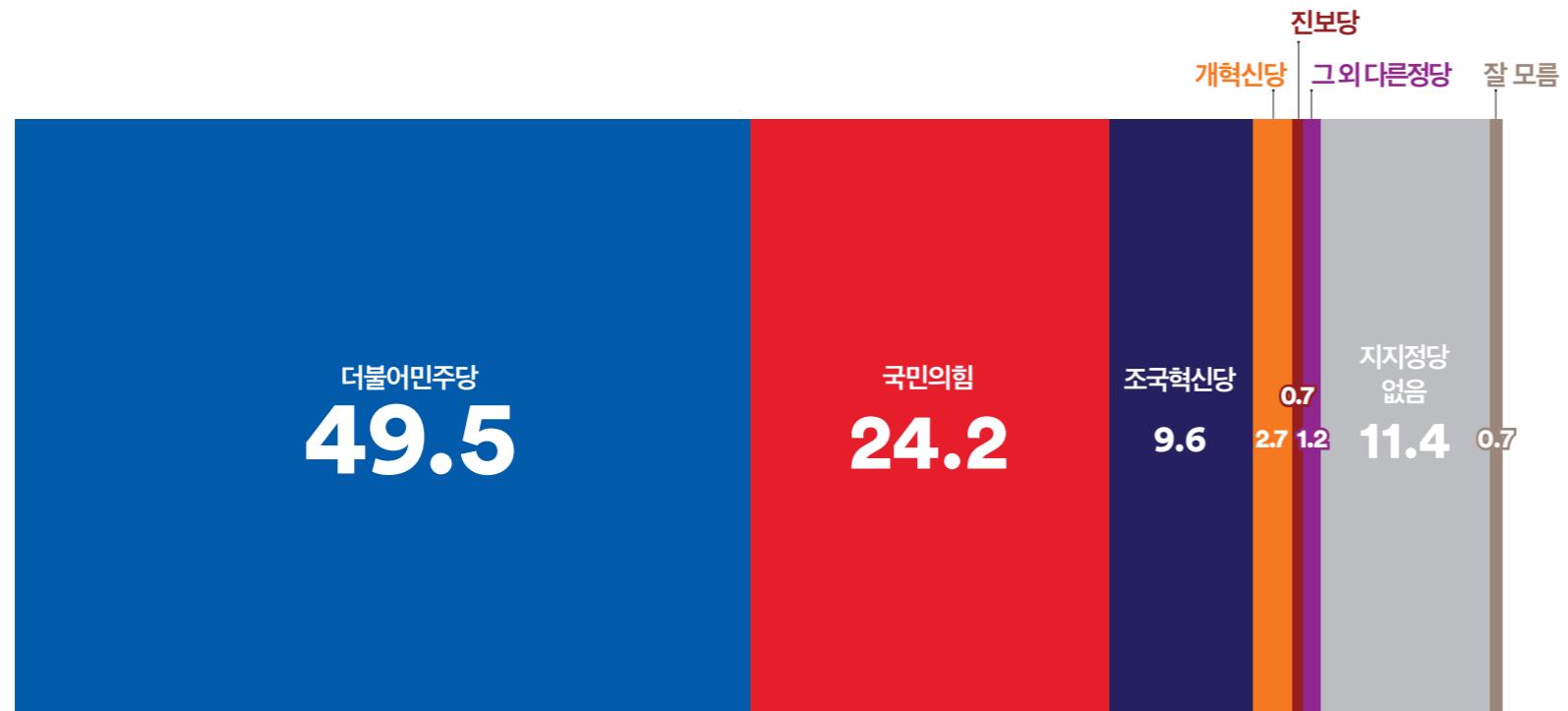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전체	조사한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 배율 (B/A)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성별	남성	529	52.6	498	49.5
	여성	476	47.4	507	50.5
연령	18~29세	125	12.4	160	16.0
	30대	136	13.5	149	14.8
	40대	189	18.8	176	17.5
	50대	212	21.1	196	19.5
	60대	188	18.7	176	17.5
	70세이상	155	15.4	147	14.6
지역	서울	188	18.7	187	18.6
	인천·경기	324	32.2	323	32.1
	대전·세종·충청	105	10.4	108	10.7
	광주·전라	96	9.6	98	9.7
	대구·경북	99	9.9	98	9.8
	부산·울산·경남	150	14.9	149	14.8
	강원·제주	43	4.3	42	4.2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연령	18-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진보	41.8	15.5	6.8	24.4		
중도		14.8	7.0		20.7	
보수			6.1	16.4		10.0
잘모름				18.6	15.3	5.0
					7.9	
						7.3

ARS



연령	18-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진보	47.3	23.9	9.4	5.0	6.6	
중도		27.4	7.3		5.6	
보수			14.4	14.1		
잘모름				24.9	10.3	
					6.1	
						5.4

90차 CATI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변화없음, '국민의힘' 1.5%p 하락, '조국혁신당' 1.8%p 상승

105차 ARS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0.5%p 하락, '국민의힘' 3.2%p 상승, '조국혁신당' 2.2%p 하락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간 격차는 CATI 25.3%p, ARS 21.9%p(지난 조사: CATI 23.8%p, ARS 25.6%p)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힘'간 격차는 CATI 34.9%p, ARS 29.8%p(지난 조사: CATI 31.6%p, ARS 35.7%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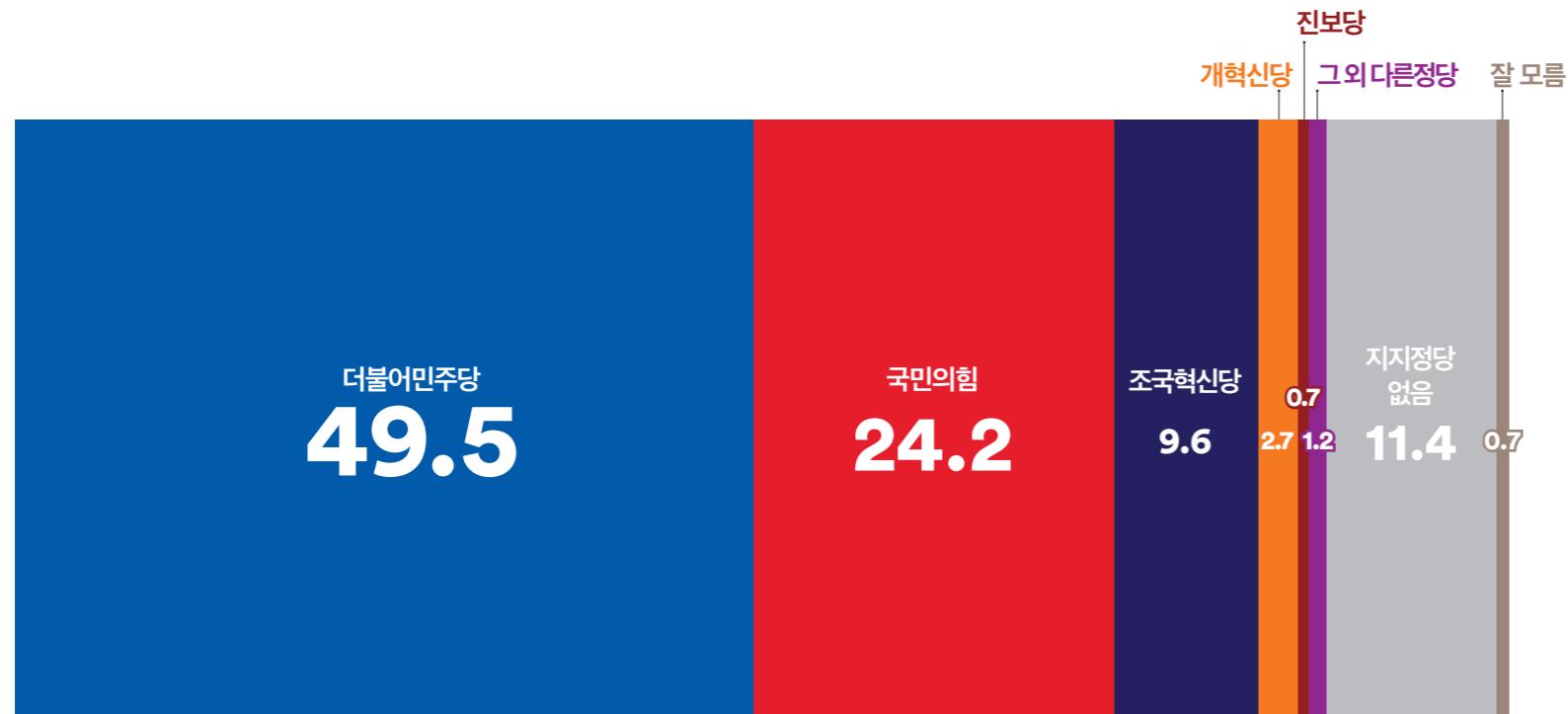
진보당
지지정당 없음
그 외 다른정당

연령	18-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진보	76.7	8.8	9.9			
중도		26.7	9.1	5.0		
보수			14.4	14.1		
잘모름				24.9	10.3	
					6.1	
						5.4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그 외 다른정당
지지정당 없음
잘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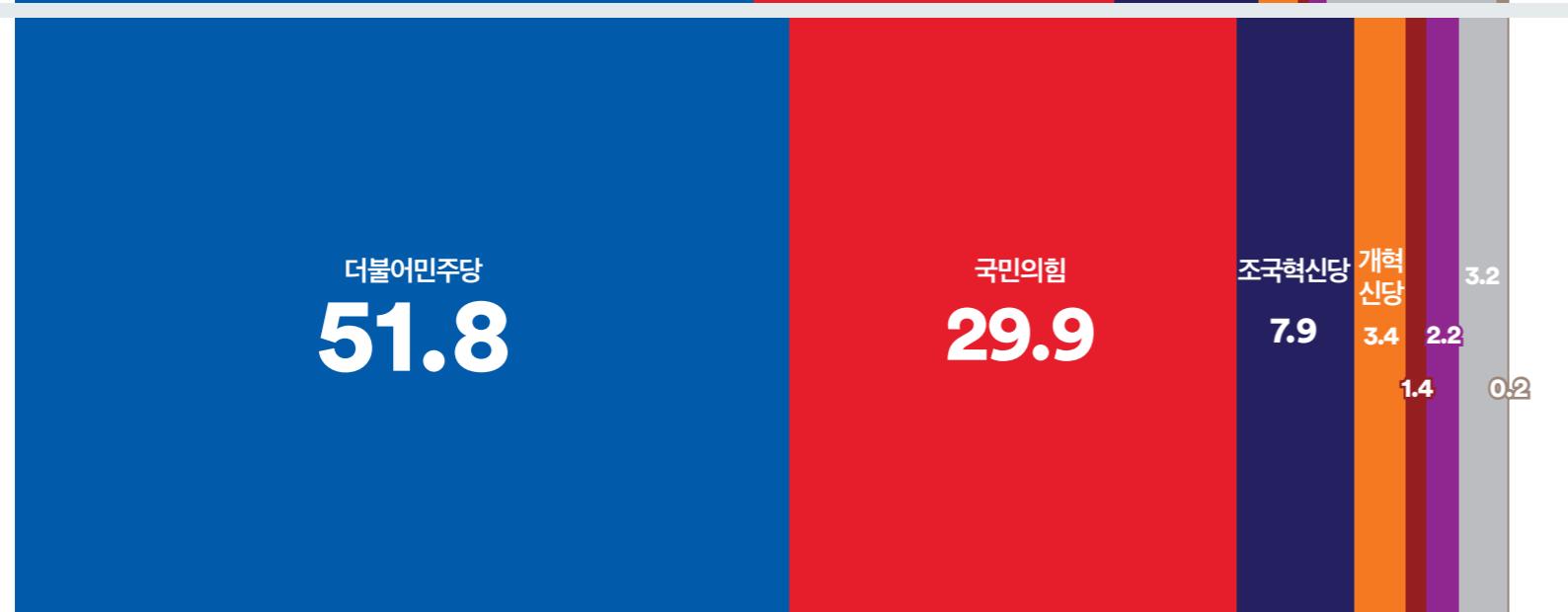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권역	서울	45.6	24.6	10.3	8.4	13.0
인천·경기	55.4		20.4	8.4	10.3	
대전충청·세종	48.9		21.5	11.5	16.2	
광주·전라	67.6			16.9	10.1	
대구·경북	28.6		46.4		5.0	12.8
부산·울산·경남	44.8		32.2		8.7	8.8
강원·제주	45.4		28.6		9.1	9.1

ARS



권역	서울	53.2	30.2	7.1	2.6	2.6
인천·경기	55.3		28.6		7.1	2.6
대전충청·세종	48.6		31.3		13.1	1.3
광주·전라	66.7			12.3	11.5	2.6
대구·경북	43.7		45.5		5.0	1.3
부산·울산·경남	40.9		32.5		8.7	7.9
강원·제주	49.2		31.7		9.0	8.1

성별	남성	50.8	28.4	7.4	5.2	2.6
여성	52.7		31.4		8.4	2.6

남·녀 모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대비 우세

CATI조사에서는 5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세,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는 '국민의힘' 우세

ARS조사에서는 6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앞서거나 우세,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는 '국민의힘' 우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을 비교하면 두 조사 모두 수도권과 호남권 (CATI 충청권 포함)에서 우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을 비교하면 두 조사 모두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PK에서 우세

진보당
개혁신당
그 외 다른정당
지지정당 없음
잘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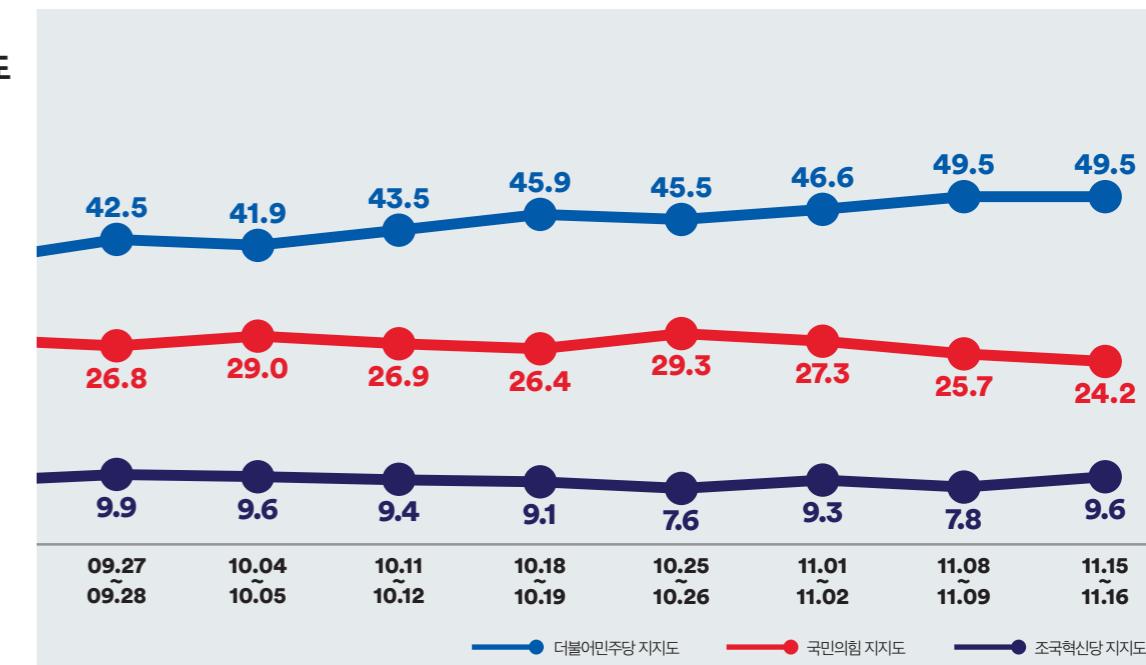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그 외 다른정당
지지정당 없음
잘모름

국정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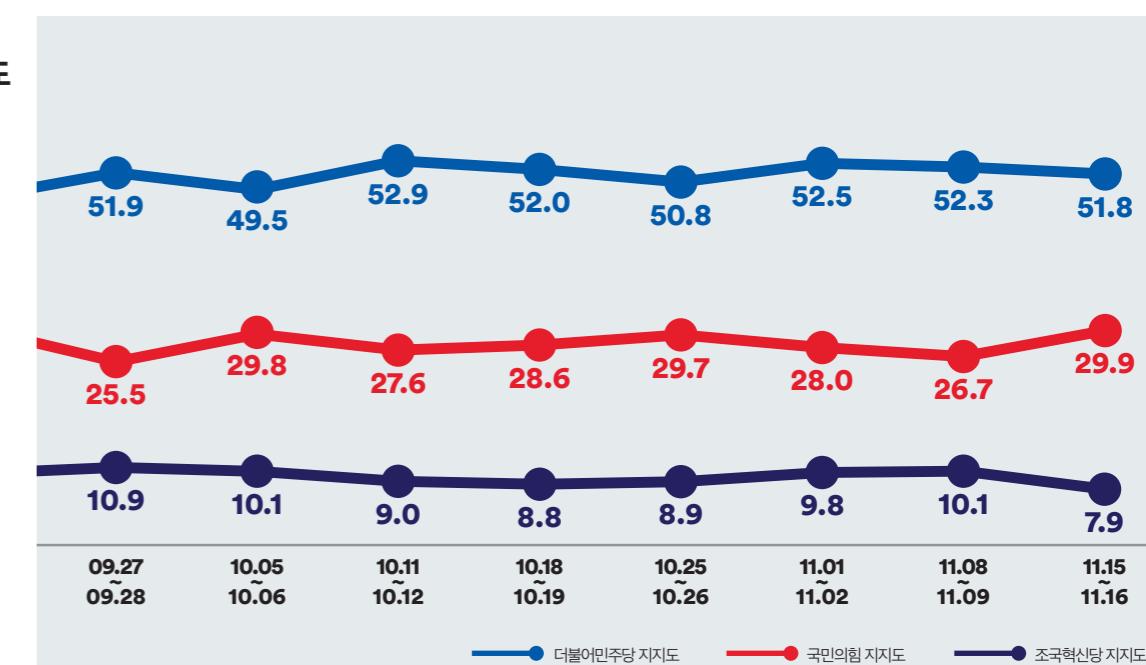
정당지지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주차별
정당지지도

ARS

주차별
정당지지도

CATI조사의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48.8%, '국민의힘' 19.0%, '조국혁신당' 12.6%의 지지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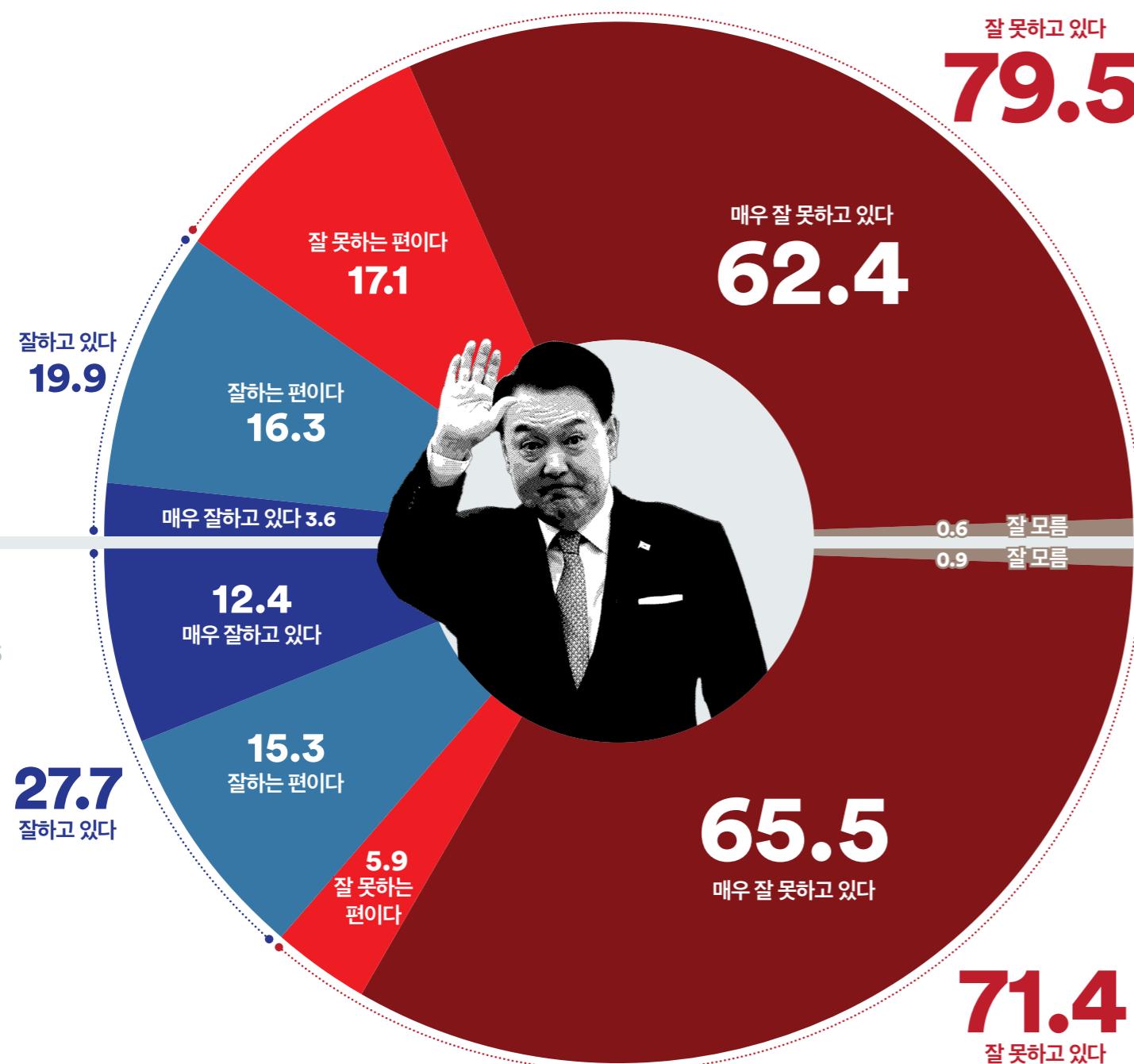
ARS조사의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51.9%, '국민의힘' 26.7%, '조국혁신당' 9.1%의 지지율을 보임

중도층에서의 양 세력('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율 격차는 CATI 42.4%p(90차: 45.3%p), ARS 34.3%p(105차: 34.3%p)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그외 다른정당	지지정당 없음	잘 모름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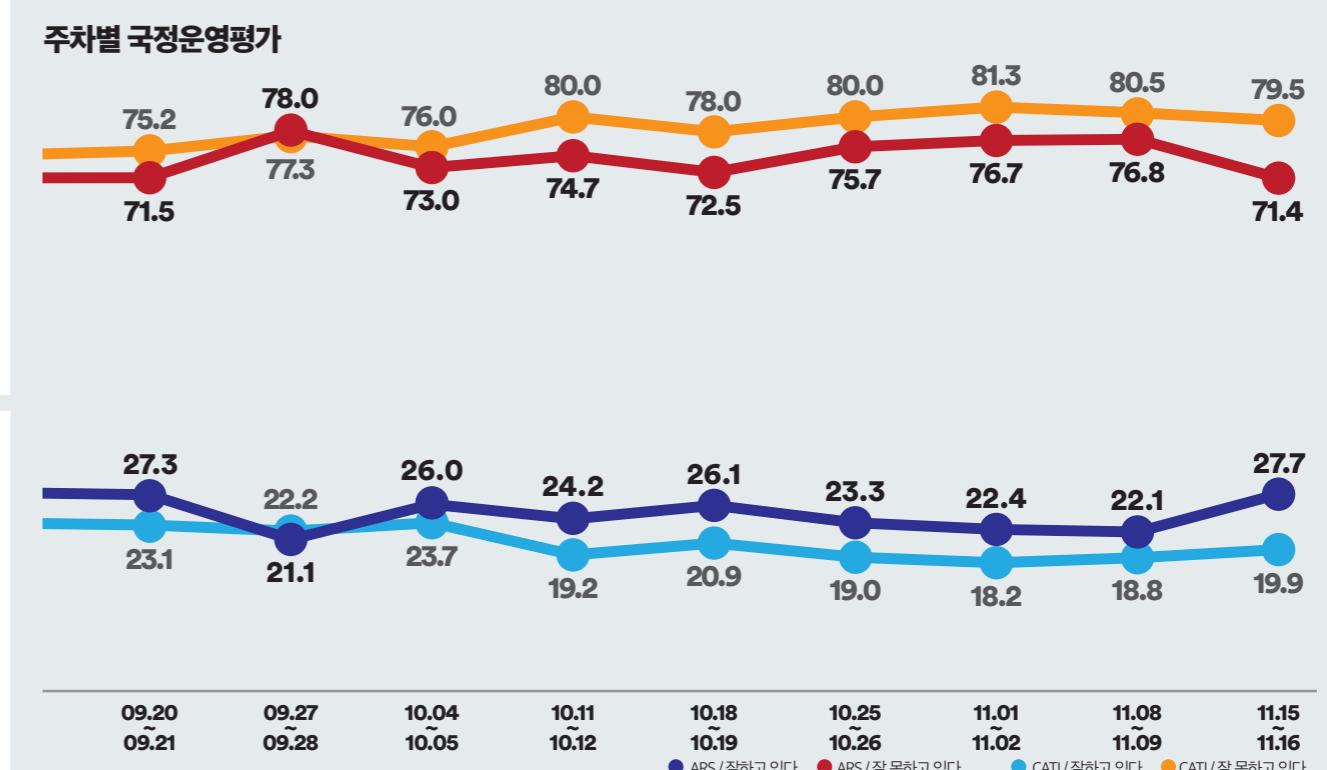
90차 CATI조사 대비 '긍정' 평가 1.1%p 상승, '부정' 평가 1.0%p 하락(격차 59.6%p)

105차 ARS조사 대비 '긍정' 평가 5.6%p 상승, '부정' 평가 5.4%p 하락(격차 43.7%p)

두 조사의 모든 권역, 남·녀 모두, 70세 이상 응답층을 제외한 두 조사의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 우세

두 조사의 중도층에서도 '부정' 평가가 우세하고, 평가 간 격차는 CATI 71.4%p(최근 조사: 72.6%p), ARS 50.7%p(최근 조사: 60.4%p)

성별	남성	90차 CATI조사				격차	91차 CATI조사			
		82.8	16.4	+2.1	18.5		80.9			
여성	여성	90차 CATI조사				격차	91차 CATI조사			
		78.4	21.0	+0.3	21.3		7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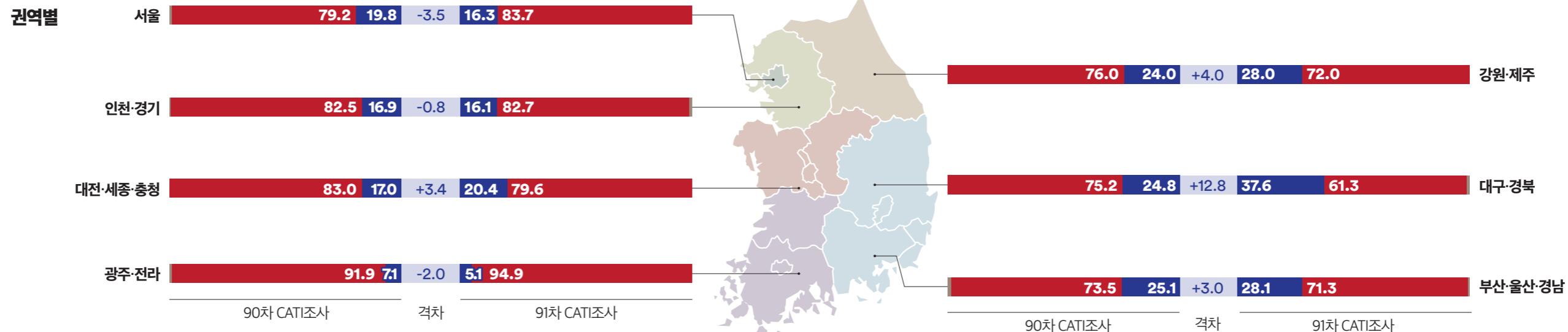


성별	남성	105차 ARS조사				격차	106차 ARS조사			
		77.8	21.6	+5.4	27.0		72.0			
여성	여성	105차 ARS조사				격차	106차 ARS조사			
		75.9	22.6	+5.8	28.4		7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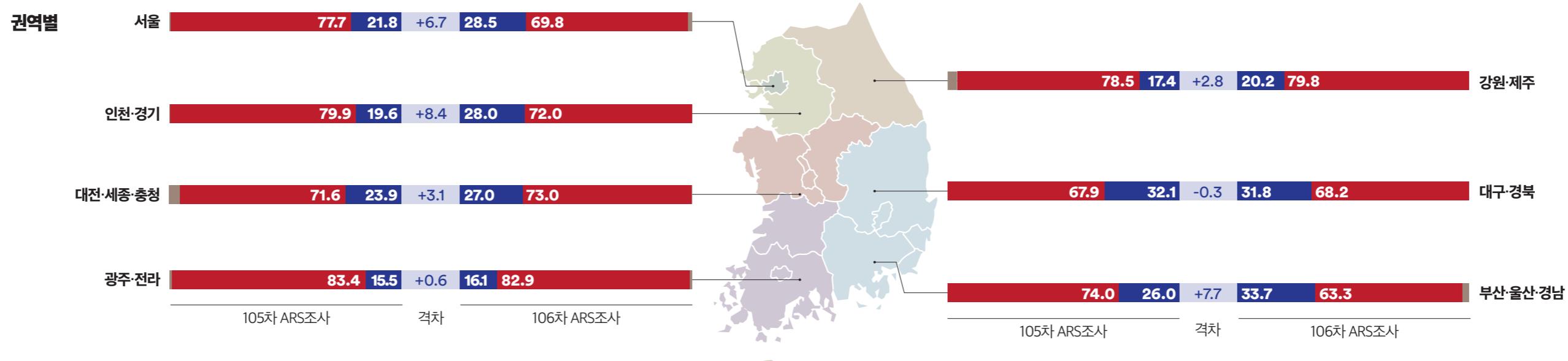
격차: ARS/잘하고 있다 - ARS/잘 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CATI/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 CATI/잘 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CATI/잘모름 + ARS/잘모름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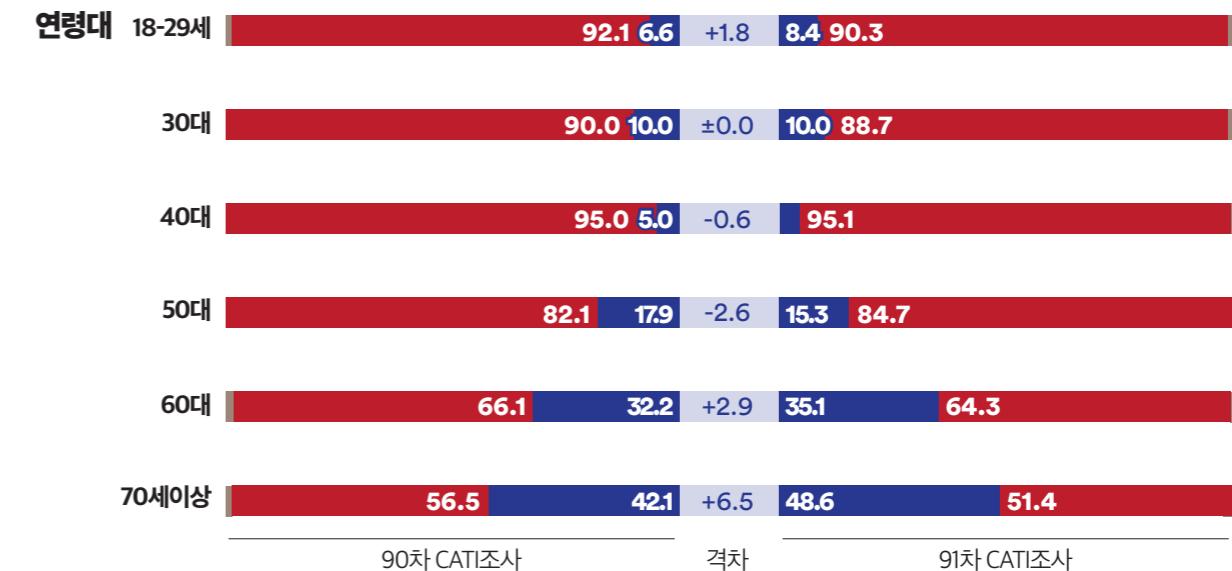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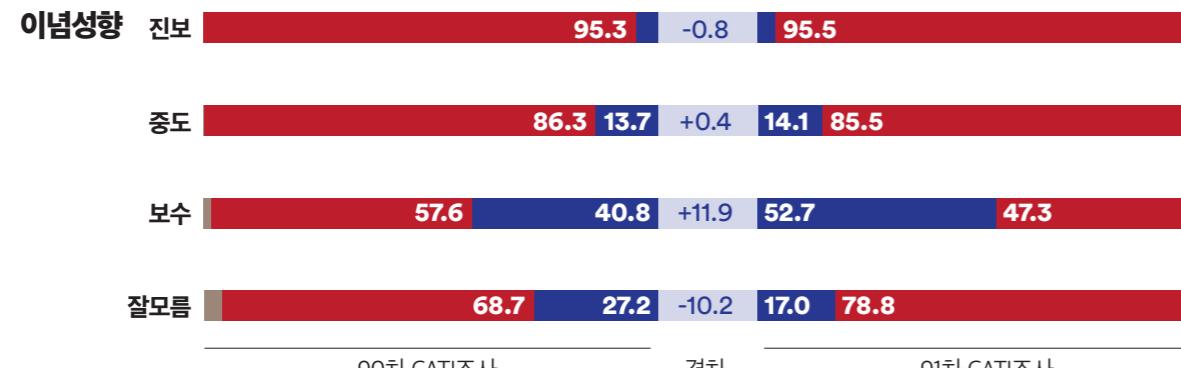


■ 격차 ■ 잘하고 있다 ■ 잘못하고 있다 ■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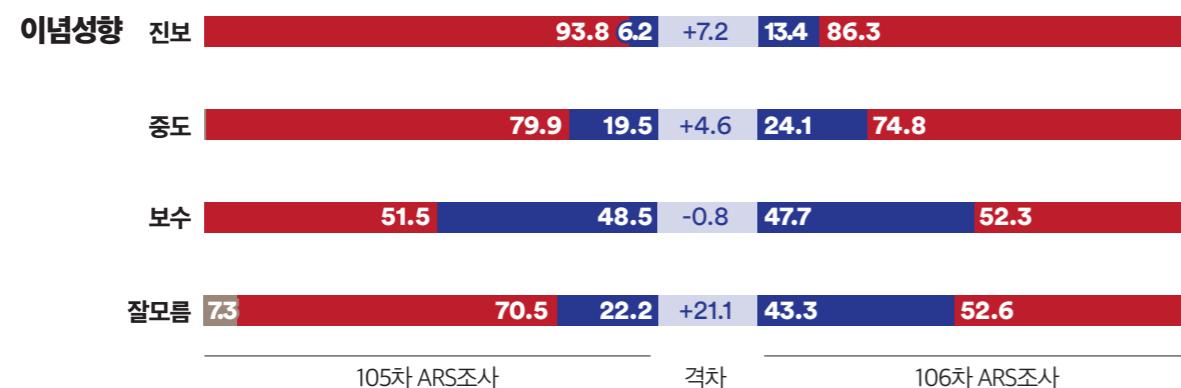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RS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검찰 수사의 초점

Q. 검찰은 명태군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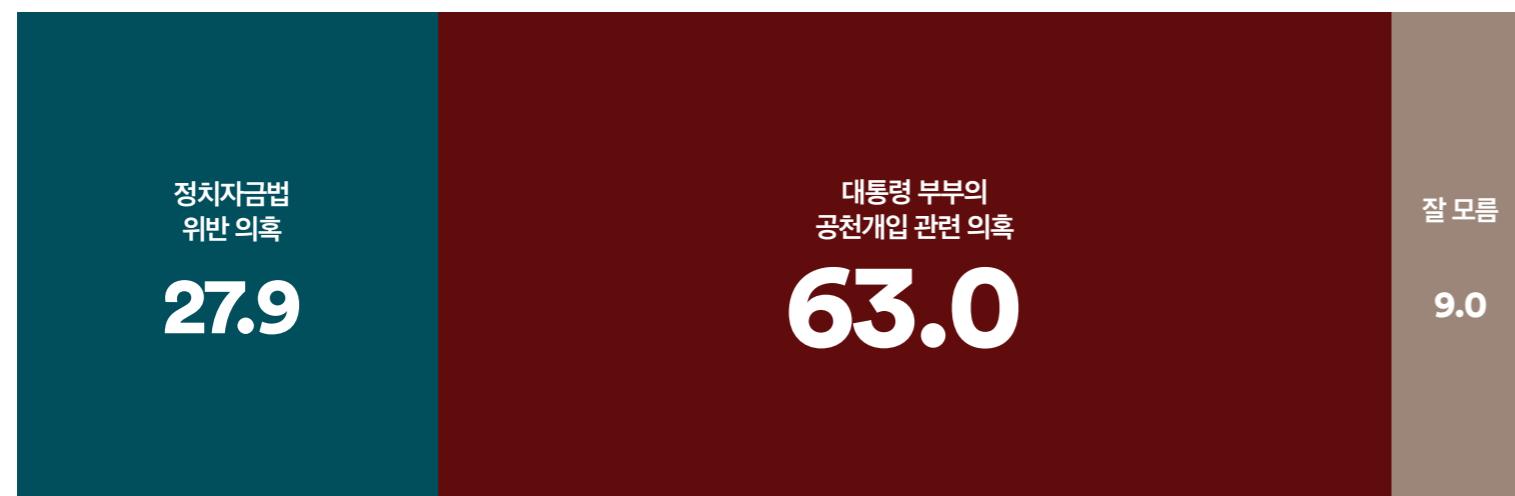
검찰 수사의 초점이 다음 중 어디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씨가 국민의힘 당대표, 대통령 후보 부부 등 정치인들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며 ... 김영선에게 국회의원의 세비 절반을 요구해 약 7600만원을 교부받은바, 이는 일반인이 정당의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이득까지 취한 사건으로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안."

"명씨가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하며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권력과 금권을 결합시킴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를 왜곡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다."

[검찰에서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소명된 명씨 등에 대한 혐의]

CATI



ARS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관련 의혹'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응답(응답 간 격차: CATI 35.1%p, ARS 45.0%p)

두 조사의 모든 권역과 CATI조사의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응답층에서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관련 의혹'이란 응답이 높음

두 조사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응답 우세(응답 간 격차: CATI 51.3%p, ARS 29.9%p)

보수층에서는 CATI조사에서는 '정치자금법'이란 응답이 우세하고 ARS조사에서는 '공천개입'이라는 응답 앞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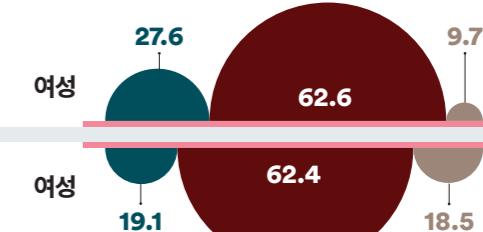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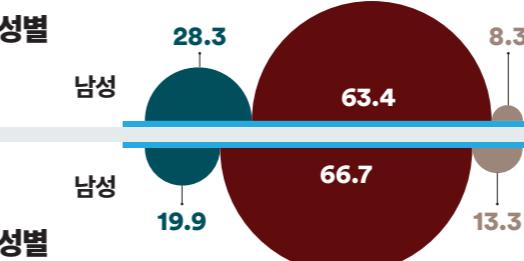
연령대

18-29세	31.9	47.3	20.8
18-29 남성	39.7	38.8	21.5
18-29 여성	23.6	56.3	20.1
30대	26.9	61.3	11.8
30 남성	32.1	54.1	13.9
30 여성	21.4	69.1	9.5
40대	13.5	84.9	
50대	16.3	79.5	
60대	40.3	55.1	
70세 이상	42.9	42.7	14.4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8.4	86.6	5.0
국민의힘	68.4		17.1 14.5
조국혁신당	6.1	91.6	
개혁신당	27.9	55.5	16.6
진보당	16.9	83.1	
그외 다른 정당	35.7	42.2	22.1
지지 정당 없음	45.2	39.9	14.9
잘 모름	26.2	17.7	56.1

성별



권역

서울	22.5	62.7	14.8
인천·경기	18.8	68.4	12.8
대전·충청·세종	20.2	63.2	16.6
광주·전라	13.5	75.4	11.1
대구·경북	25.4	56.4	18.2
부산·울산·경남	17.2	58.1	24.7
강원·제주	18.0	62.8	19.2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6.6	91.8	
국민의힘	45.6		15.7 38.6
조국혁신당	7.8	86.9	5.3
개혁신당	14.6	65.4	20.0
진보당	57.3		42.7
그외 다른 정당	30.6	38.6	30.8
지지 정당 없음	16.2	46.1	37.6
잘 모름	49.2		50.8

조작할 수 있는 조사

Q. '여론조사를 이용해 경선조사 조작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명태균 씨 녹취가 공개되었습니다.

명태균 씨가 이런 방식으로 지난 대선 국민의힘 경선에도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때 ARS 돌리면 어떤일이 벌어지나면 상대편 지지자가 누군지가 좌악 뽑아져 나와요"

그리고 00사무실에 가면 전화 콜센터 해놨어요 안했어요 인제?

이번 주말에 하죠? 자, 16,16일날 딱 (ARS조사) 땡겼어.

자 그다음에 진짜 돌아가는날, 진짜 돌아가는 날 우리도 조사하면 안되나?

상대 지지자한테 전화하지? 그럼 글마는 전화 받았다고 하겠지.

그 다음에, 자기 전화 받았다고 (착각하는데 공식) 전화 받나?"

"아니 우리가 뭐 우리가 뭐 여론조사하는데

언론사에서 자체조사 안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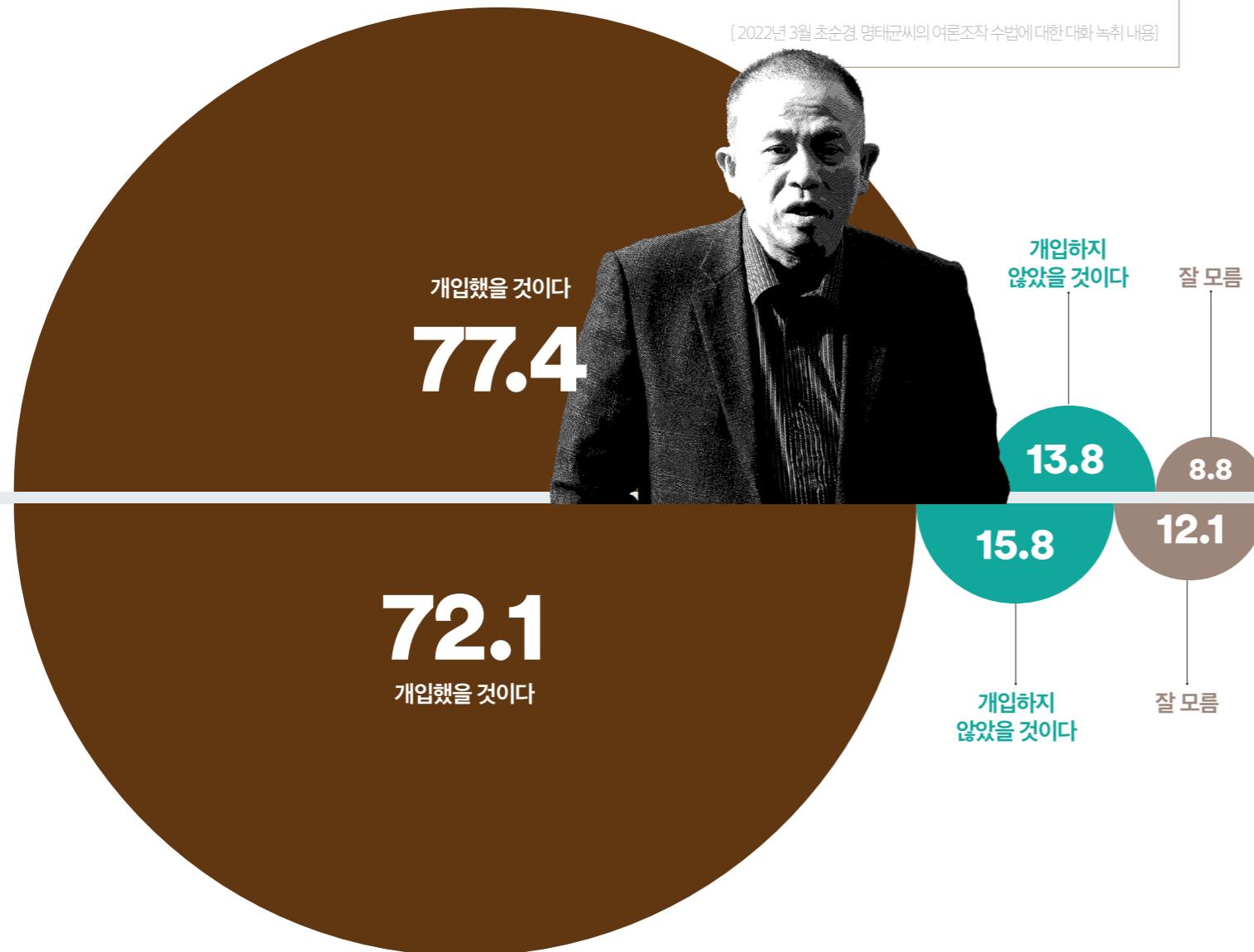
아니 그 중앙, 그 당에서 그날 조사한거 있어요?

우린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조사한 거 모르는데?

아니 대한항공 비행기 뜯다고 아시아나 비행기 뜯면 안되요?"

[2022년 3월 초순경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수법에 대한 대화 녹취 내용]

CATI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국민의힘 경선에도 개입했을 것'이라고 응답(응답 간 격차: CATI 63.6%p, ARS 56.3%p)

두 조사의 모든 연령과 모든 권역, 성별에서 '개입했을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

보수층에서도 '개입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우세(응답 간 격차: CATI 34.1%p, ARS 32.4%p)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 CATI 조사에서는 두 응답이 팽팽하게 맞서고, ARS조사에서는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란 응답이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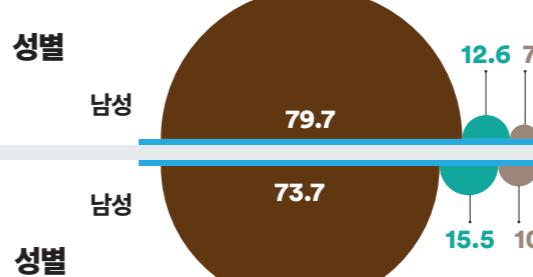
권역

서울	78.9	11.9	9.2
인천·경기	77.6	12.6	9.8
대전·충청·세종	73.7	13.6	12.7
광주·전라	92.5	1.1	6.4
대구·경북	68.6	25.0	6.4
부산·울산·경남	76.8	14.5	8.7
강원·제주	67.3	26.8	6.0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94.0	1.1	4.9
국민의힘	42.1	45.0	12.9
조국혁신당	97.0	1.1	1.9
개혁신당	77.8	12.1	10.2
진보당	100.0	0.0	0.0
그외 다른 정당	78.5	14.5	7.0
지지 정당 없음	64.9	10.0	25.0
잘 모름	43.9	14.2	41.9

성별



연령

18-29세	65.5	20.7	13.9
30대	75.5	19.9	4.6
40대	82.5	9.4	8.1
50대	79.9	12.2	7.9
60대	70.5	16.7	12.8
70세 이상	54.6	17.7	27.7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94.8	1.1	4.1
국민의힘	29.1	42.7	28.2
조국혁신당	96.0	1.1	2.9
개혁신당	63.2	19.3	17.5
진보당	77.6	14.2	8.2
그외 다른 정당	58.4	17.8	23.8
지지 정당 없음	61.1	5.9	33.0
잘 모름	100.0	0.0	0.0

■ 개입했을 것이다 ■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 잘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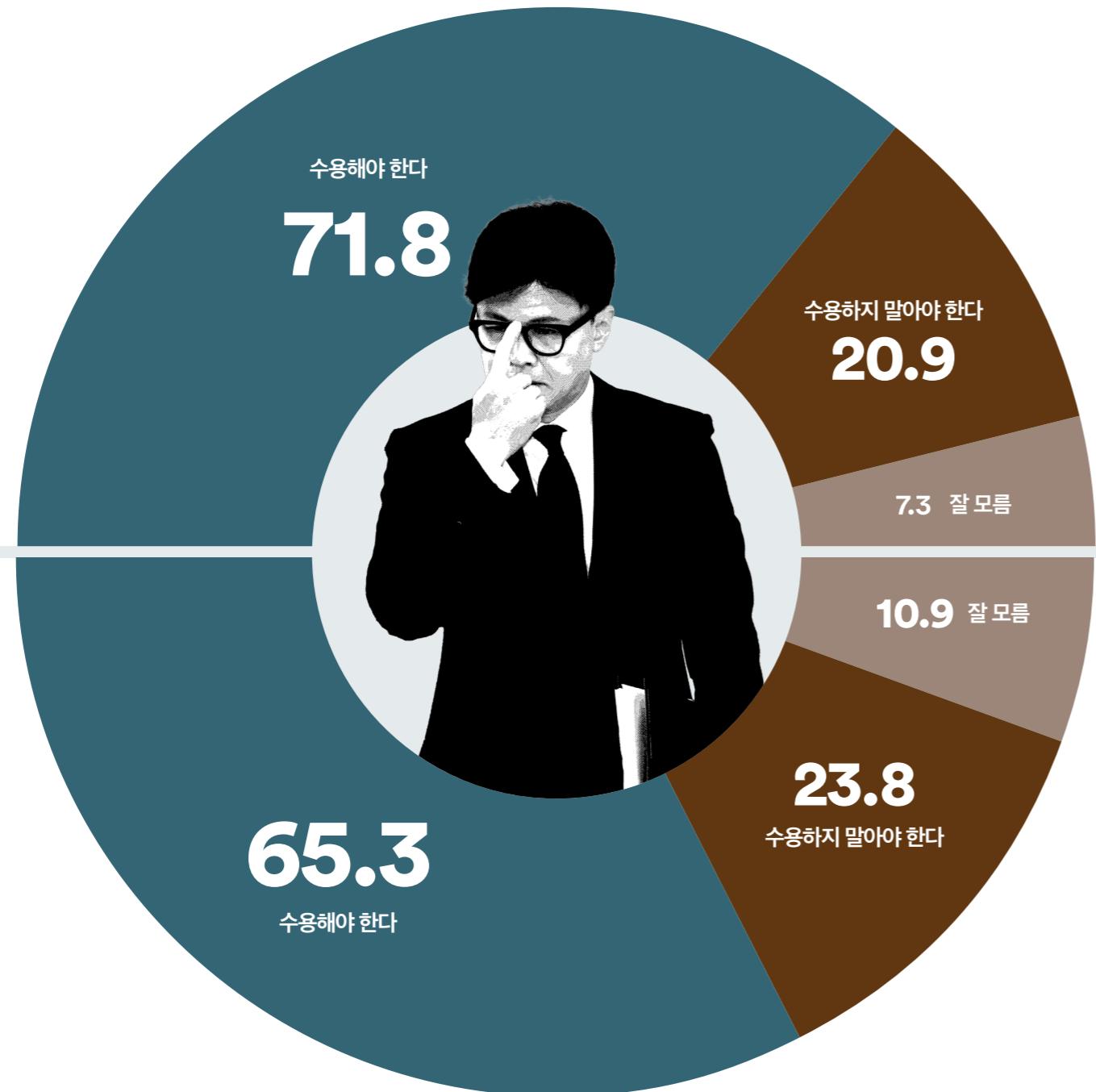
한동훈 대표의 결정

Q.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공천·선거 개입' 두 가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주장한 제3자 특검 추천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67.7 24.5 7.8 *

CATI



응답자 10명 중 6·7명은 한동훈 대표가 수정된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응답(응답 간 격차: CATI 50.9%p, ARS 41.5%p)

두 조사의 모든 권역, 60대 이하 연령층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 우세, 두 조사 모두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도 '수용해야 한다' 앞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 우세

69.0 21.2 9.8

CATI &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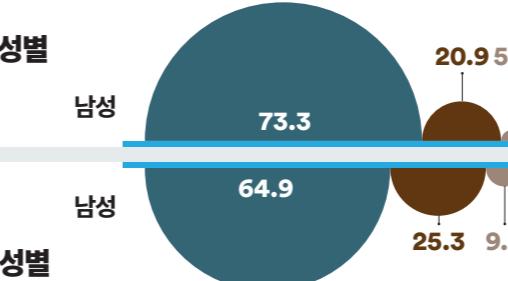
권역

서울	71.7	20.6	7.7
인천·경기	75.9	15.3	8.8
대전·충청·세종	70.8	19.3	9.9
광주·전라	83.9		14.2
대구·경북	57.9	33.0	9.1
부산·울산·경남	66.7	27.4	5.8
강원·제주	64.9	33.3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91.9	7.3	
국민의힘	32.1	56.9	10.9
조국혁신당	91.6		7.3
개혁신당	85.6		10.2
진보당	83.1		16.9
그외 다른 정당	24.1	44.3	31.6
지지 정당 없음	55.6	25.0	19.4
잘 모름	29.8	30.7	39.6

성별



연령

18-29세	59.9	21.6	18.5
30대	69.6	21.1	9.3
40대	81.4		14.4
50대	73.1	22.0	
60대	58.5	27.8	13.7
70세 이상	45.4	37.8	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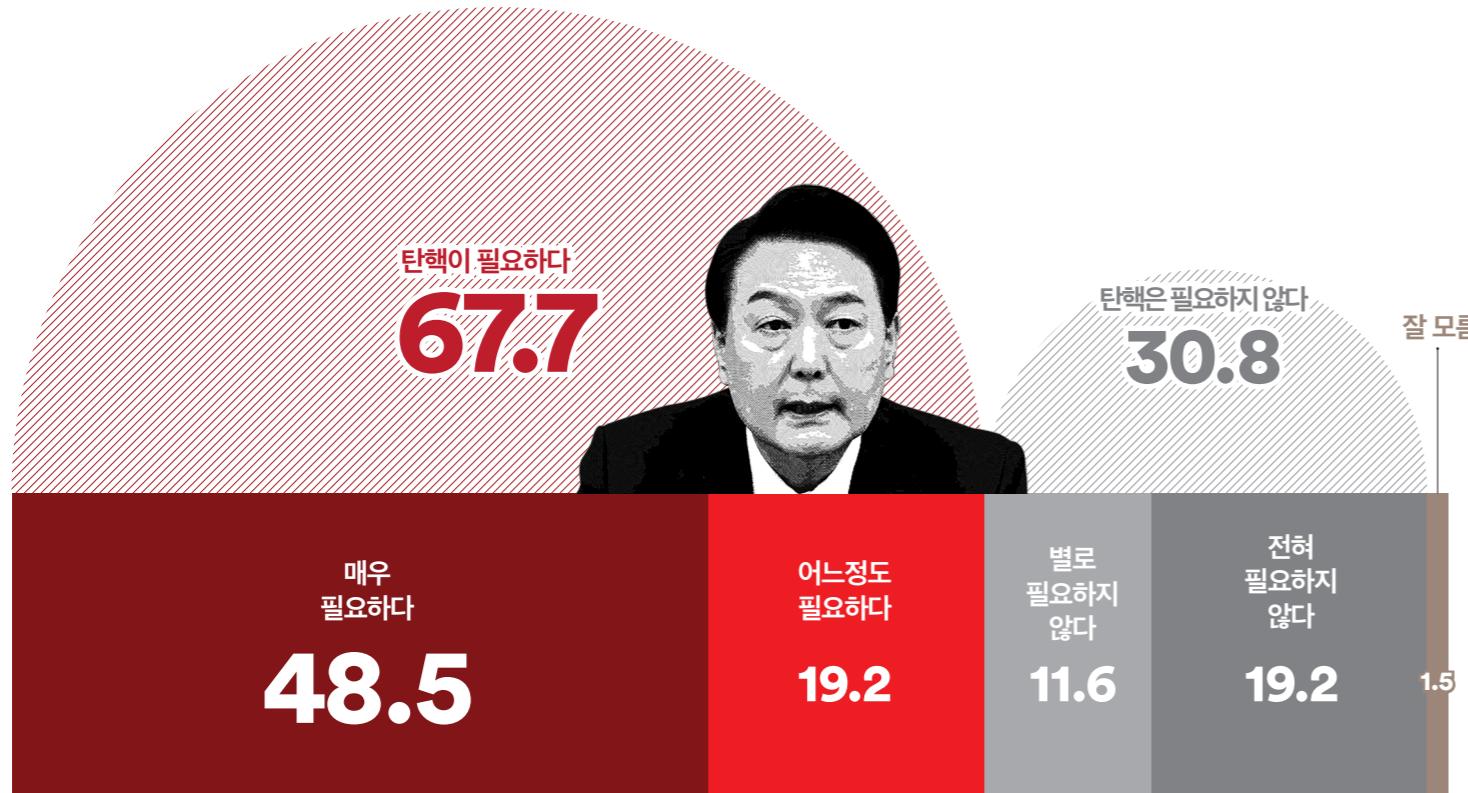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88.8	7.2	
국민의힘	23.2	57.2	19.5
조국혁신당	90.7		5.2
개혁신당	55.6	17.7	26.7
진보당	71.5	14.0	14.4
그외 다른 정당	39.6	40.3	20.1
지지 정당 없음	42.3	28.1	29.6
잘 모름	49.2		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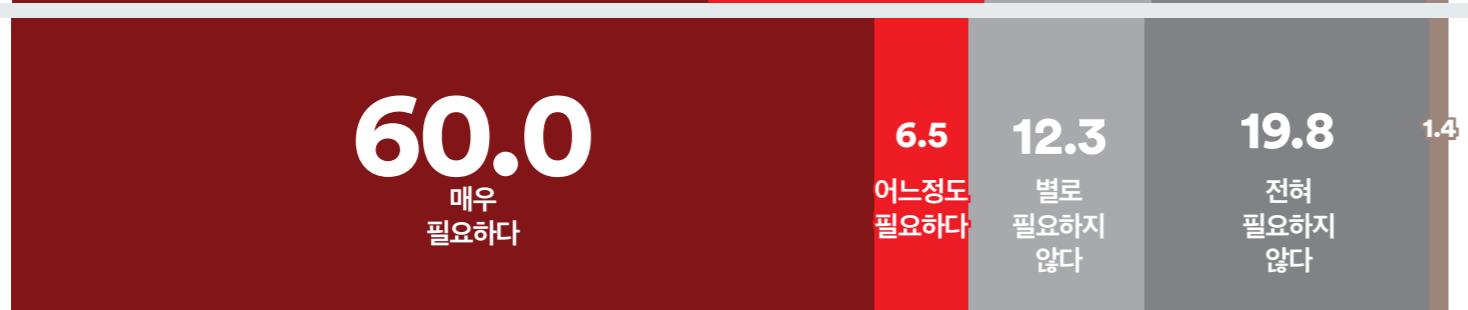
탄핵필요성

Q.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ARS

66.5
탄핵이 필요하다

10명 중 6명 이상이 '대통령 탄핵이 필요하다'고 응답(응답 간 격차: CATI 36.9%p, ARS 34.4%p)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10명 중 9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CATI 91.0%, ARS 88.1%)

CATI조사의 TK를 제외한 두 조사의 모든 권역과 60대 이하 응답층,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 앞서거나 우세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앞서거나 우세

두 조사의 보수층에서는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격차: CATI 34.1%p, ARS 13.5%p)

권역

서울	64.9	32.8
인천·경기	71.9	26.5
대전·충청·세종	67.1	32.0
광주·전라	89.7	8.4
대구·경북	48.4	51.6
부산·울산·경남	62.4	36.0
강원·제주	61.7	36.5

연령

18-29세	69.7	26.7
30대	72.0	26.6
40대	90.2	9.2
50대	75.6	23.3
60대	54.4	45.6
70세이상	39.3	57.4

권역

서울	64.0	35.1
인천·경기	68.9	30.8
대전·충청·세종	66.0	33.0
광주·전라	79.0	18.9
대구·경북	61.9	36.0
부산·울산·경남	59.4	37.0
강원·제주	67.2	30.9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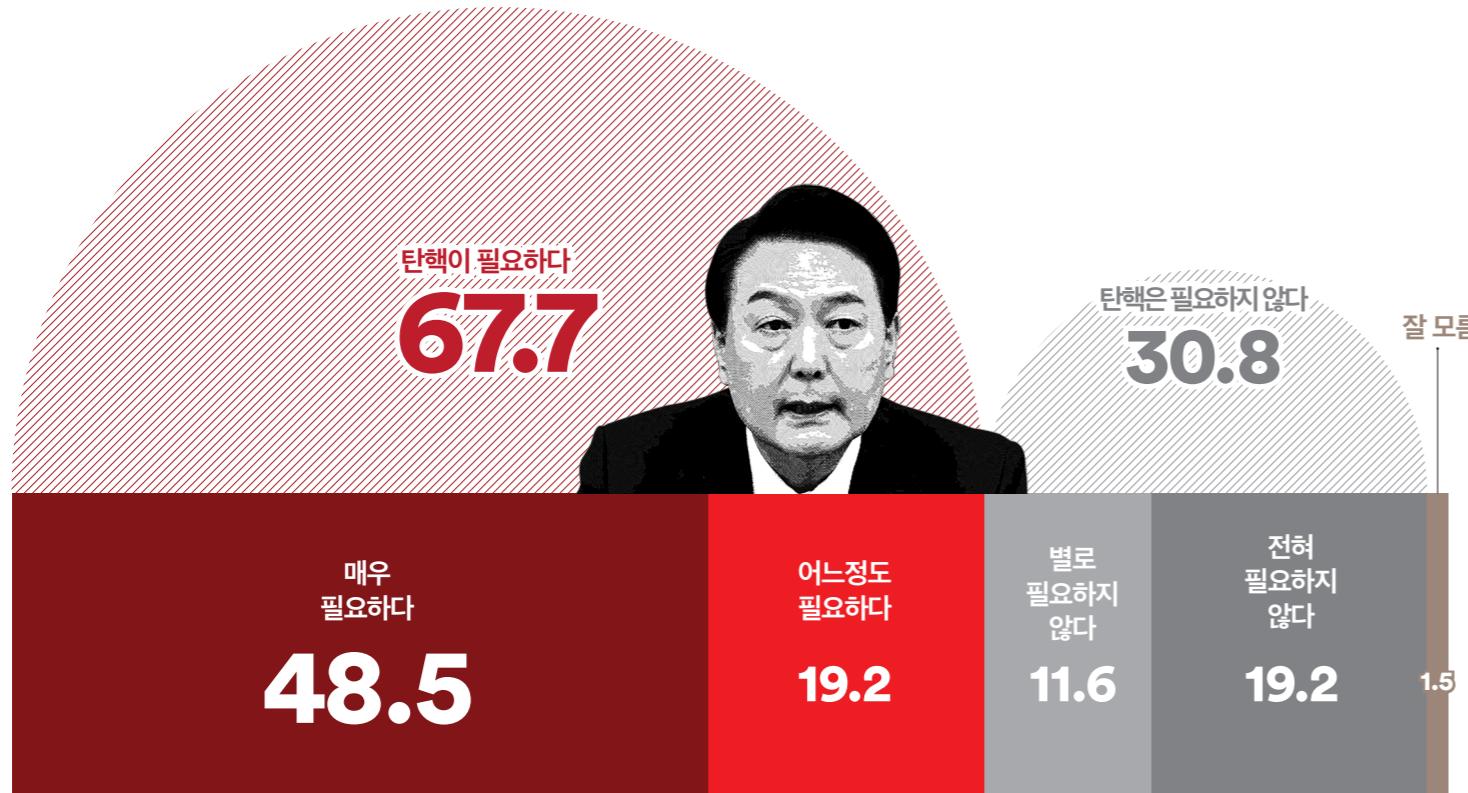
18-29세	67.4	31.0
30대	69.0	30.3
40대	84.7	15.3
50대	72.0	27.1
60대	60.3	38.0
70세이상	41.2	54.8

■ 탄핵이 필요하다 ■ 탄핵이 필요하지 않다 ■ 잘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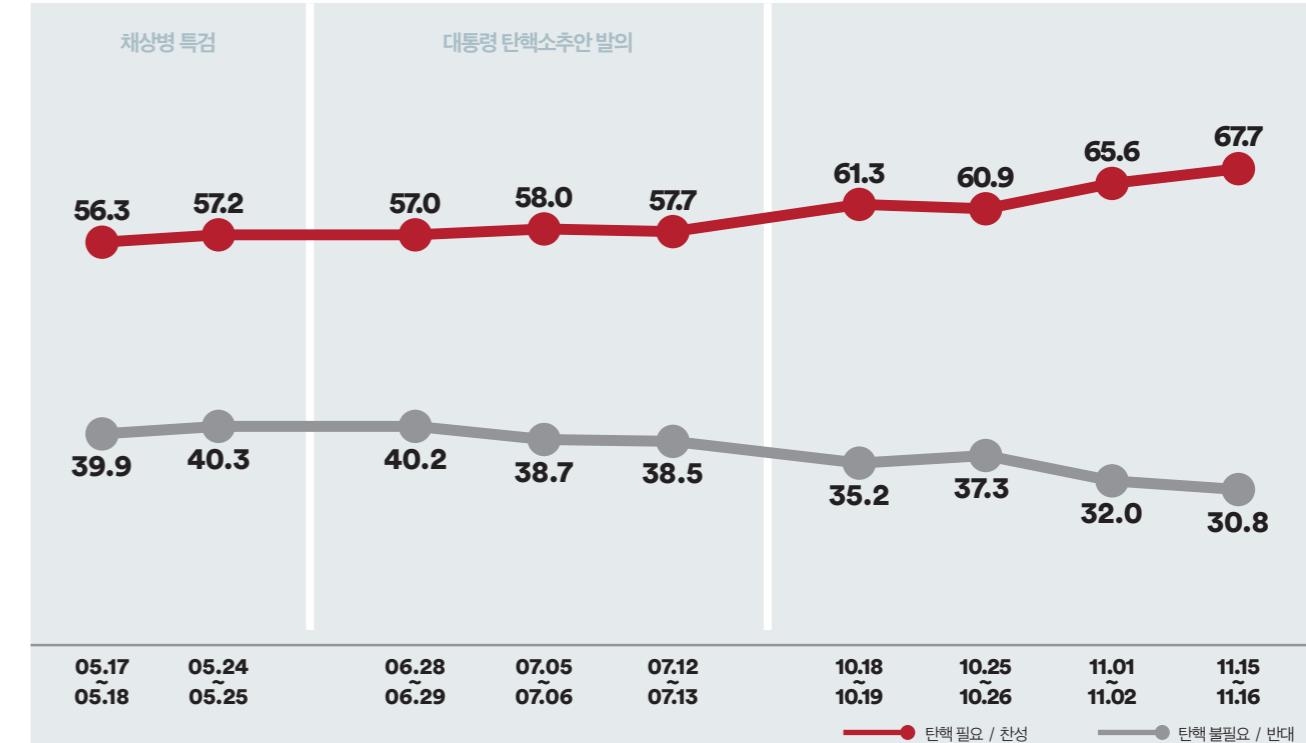
탄핵필요성

Q.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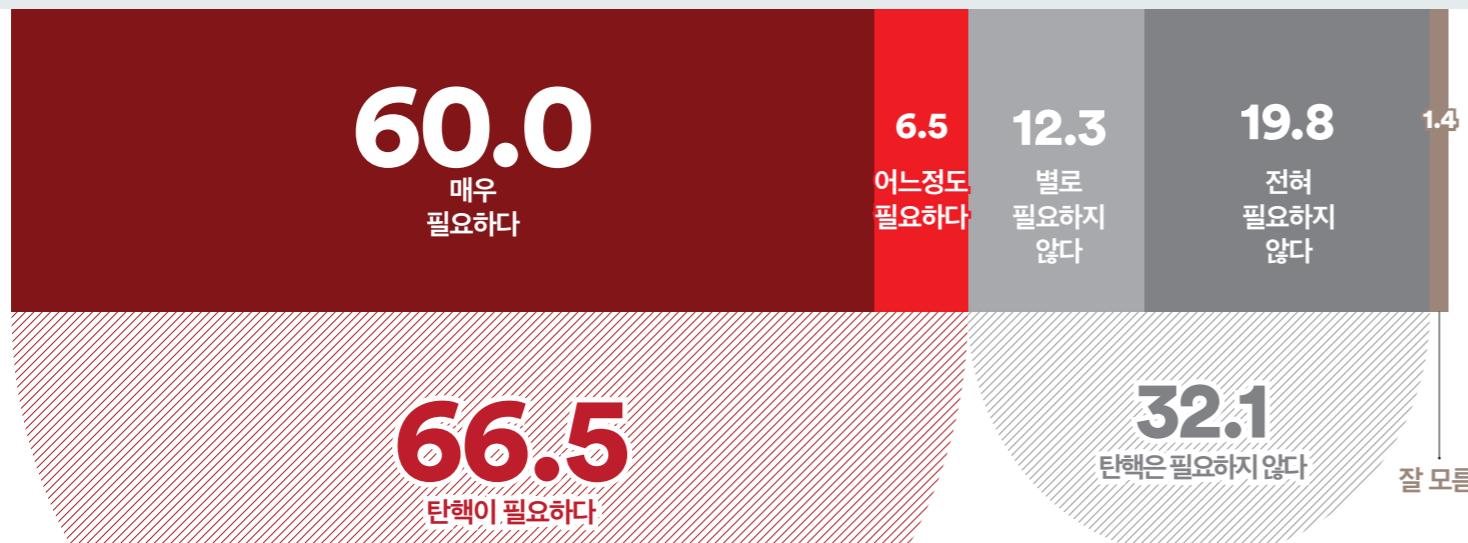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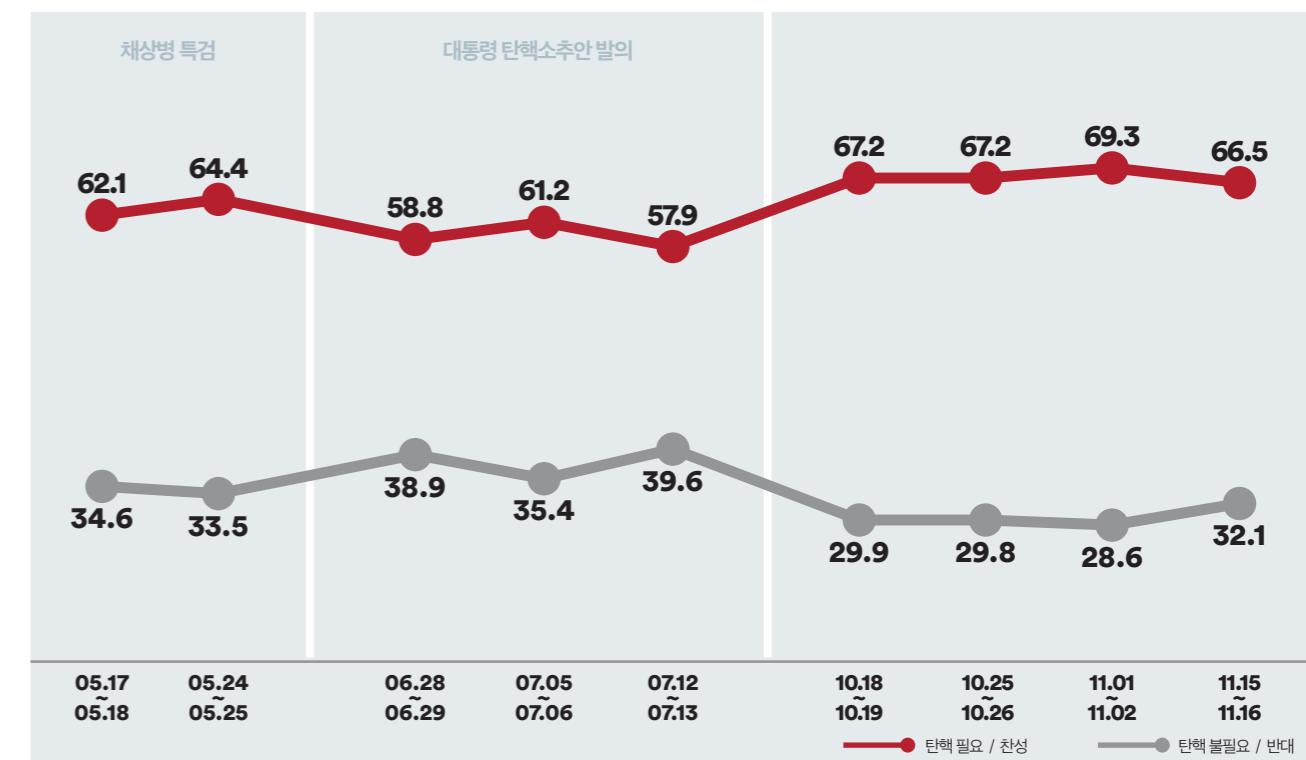
시기별 탄핵의견



ARS



시기별 탄핵의견



10명 중 6명 이상이 '대통령 탄핵이 필요하다'고 응답(응답 간 격차: CATI 36.9%p, ARS 34.4%p)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10명 중 9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CATI 91.0%, ARS 88.1%)

CATI조사의 TK를 제외한 두 조사의 모든 권역과 60대 이하 응답층,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 앞서거나 우세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앞서거나 우세

두 조사의 보수층에서는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격차: CATI 34.1%p, ARS 13.5%p)



WWW.
FLOWERRESEARCH.
COM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WR_202411_03

